



사랑한 만큼 베푸는 물

글 권덕희 _ 공무원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는 그의 저서에서 ‘물은 육각 결정체 속에 숨은 우주의 비밀’이라고 했다. 그는 육각형인 눈(雪)의 결정체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그렇다면 물의 결정체도 모두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문으로 물을 얼려 결정체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찍어온 그는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다고 한다. ‘사랑’이나 ‘감사’ 또는 ‘기쁨’, ‘희망’ 등의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찍은 물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육각형으로 그 결정이 곱게 나타났지만, ‘망할 놈’, ‘바보’ 등 부정적인 악한 인간의 표현에 서의 사진은 흉하고 몰골사납게 일그러져 있었다고 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어떤 글이나 말,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말이나 글,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서에 상응하는 형태의 결정을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이웃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물은 사람의 품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이 익어가는 만큼 그 형태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한강과 낙동강의 큰 물줄기도 한 방울의 이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사랑을 듬뿍 받을 때 우리는 미래에 더 맑고 깨끗한 강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쓰고 버린 물도 사랑을 베푸는 만큼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다. 물에 대한 사랑은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학교 알뜰한 빗물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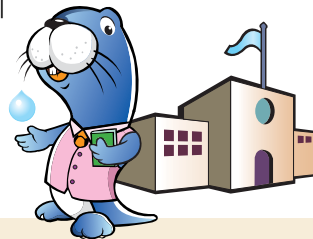
글 심지수 _ 중학생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지만, 물사랑도 실천하고 있는 더 좋은 학교다.

우리 학교는 빗물을 모은다.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옥상에서부터관을 이용해서 1층에 있는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커다란 통에 빗물을 받아 놓는다. 그 물은 더울 때 학교 외관을 가꾸는 식물들에게 돌아간다.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학교의 자금이자 학생들과 학부모의 땀방울이다.

이 귀한 물을 보다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청소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땀 흘려 모아놓은 물을 식물에

게 주고, 그러고도 물이 남으면 걸레 빠른 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물걸레질 하는데 쓰면 훨씬 더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헝겊물의 재활용

글 윤미자 _ 주부

저는 아이들 교복이나 양말 등등 손빨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빨래하고 헝겊물은 무조건 세탁기에 붓는답니다. 헝겊을 보통 다섯 번은 한다고 쳐도 10kg 세탁기 반은 채워지거든요.



그 외에도 가족들이 물을 마시고난 컵을 헝겊 때도 헝겊물은 무조건 세탁기에 넣는답니다. 설거지와 손빨래 헝겊물 만으로도 세탁기가 꽉 차거든요. 이전 아이들도 손 씻은 물마저 세탁기에 넣는 것이 습관이 됐네요.

나중에 내 아이들이나 후손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물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하려 노력합니다.



2005. 9. 16

밀가루 설거지 어때요?

글 hahasea님 _ 주부

밀가루로 설거지를 하면 세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요즘 밀가루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뽀도독~' 닦이는 접시가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2005. 9. 14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

글 ghdtndkWkd _ 초등학생

저는 물을 아끼려면 일단 물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책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물의 대한 정보를 모으면 나중에는 물을 보다 더 잘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글은 우리 협회와 환경부가 공동 운영하는 물사랑 홈페이지(www.ilovewater.or.kr)에서 원문 그대로 발췌하였습니다.